

EMBRACE YOU

포근하고 단단하게 감싸주는 나의 작은 섬.

photographer JANG SEUNG WON
editor YOON JEONG HOON

소파를 고를 때 가죽의 등직함과 패브릭의 친밀함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적 있다면 '오지 암체어(Ozzy Armchair)'를 눈여겨볼 것. 올해 밀란 디자인 위크에서 첫선을 보인 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상륙한 플렉스폼(Flexform)의 최신 컬렉션이다. 디자이너 패트릭 노게(Patrick Norguet)는 옷의 일부를 가구의 일부로 재해석했다. 패브릭으로 부드럽게 한 번, 가죽으로 단단하게 다시 한 번 몸을 감싼 등받이는 17세기에 처음 도입돼 귀족의 상징이 된 칼라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다. 최고급 소가죽에 안장 제작 장인의 정교한 기술을 접목해 우아한 뒤태를 구현했고, 몸과 닿는 안쪽은 구스 다운 쿠션으로 채워 탁월한 편안함까지 챙겼다. 보이지 않는 금속판 위에 놓여 360°로 회전 가능한 스위블 체어라 손으로 살짝 밀거나 몸을 가볍게 틀면 원하는 쪽으로 쉽게 향한다. 서로 다른 소재 조합으로 방향에 따라 다른 면모를 보이니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 없고 이동도 편리하다. 한마디로 유목민처럼 집 안 이곳저곳 누빌 준비가 된, 한 사람을 위한 아늑하고 자유로운 보금자리. 패브릭과 가죽 컬러 변경이 가능한 플렉스폼 오지 암체어는 가격 미정. Flexform by Infini.